



즉시 배포용: 9/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올해 여름 주립공원과 캠핑장 탐방율이 **10%** 증가했다고 발표하다

공원시스템은 여름 피크 시즌에 3,860 만명이 다녀갔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공원, 역사유적지와 캠핑장이 Memorial Day 주말에서 2015년 노동절까지 거의 3,860만명으로 추산되는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또 다른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공원시스템은 2014년 같은 여름 기간 보다 탐방율이 9.6% 증가했습니다.

“낚시, 하이킹, 바이킹, 캠핑 등 뉴욕주립공원들은 더 많은 방문객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과 방문객 모두 이번 여름의 끝을 잘 장식하고, 또는 뉴욕주립공원 한 곳을 여행하면서 뉴욕주 곳곳에 숨어 있는 천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을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노동절 주말은 뉴욕의 주립공원과 역사유적지에서 최고의 여름을 선사했습니다”라고 공원레크리에이션및역사보존실의 Rose Harvey 장관이 말했습니다. “뉴욕주립공원을 개선하고 널리 홍보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반영하는 듯 주립공원 탐방율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860만명으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2015 Memorial Day 주말부터 노동절까지 주립공원의 시설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2014, Memorial Day 주말에서 노동절까지의 3,520만명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여름 시즌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노동절 주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일 동안 22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2014년 노동절 주말의 200만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공원 탐방률은 5년만에 다시 등장한 Jones Beach State Park의 불꽃놀이, USA Today가 미국 내 제1위 및 제3위 주립공원으로 꼽힌 Letchworth와 Watkins Glen 주립공원의 공개, 뉴욕시 물가에 자리한 새로 설계된 Buffalo Harbor State Park의 개선, 여름 내내 화창했던 날씨, 느즈막한 계절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으로 올라갔습니다.

하계 이용객 수치는 주립 공원을 개선하여 야외 레크레이션 이용을 확대하고 주의
광대한 관광 및 레크레이션 명소를 홍보하는 데 대한 Cuomo 지사의 집념을 나타냅니다.

Cuomo 지사의 리더십에 의거 뉴욕주는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하려는 역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NY 공원 2020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0까지 주립 공원에 대한 민간 및 공공 자금 9억 달러를 활용하는
다년간의 약속입니다. 주지사의 2015-16 집행 예산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1억 1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